



세계 납세자 운동의 방향 - 세계납세자연합회 국제회의 참석기 -

이성규 (서울여대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이사)

2010-10-25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은 투표자로서 투표의무와 납세자로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들 두 가지 의무는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신성하게 여겨지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자로서의 시민의 의무는 잘 이행되고 있으나 납세자로서의 의무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선진국에서 납세자 운동이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지난 9월 8~11일에 세계납세자연합회(World Taxpayers Associations, 이하 WTA) 국제회의가 민주주의의 산실인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명목적으로는 ‘세계 납세자회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 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 국가의 번영” 등이 회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WTA는 “낮은 세금, 낭비 축소, 책임 있는 정부, 납세자 권리” 등을 핵심 모토로 1988년 설립되어 52개국으로부터 65개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미국의 스탠리(David Stanley)가 회장을 맡고 있다. 세계 납세자연합회는 회원단체들 간의 단결을 도모하고 납세 정보와 납세자 운동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의 납세자회의는 미국에서 불붙고 있는 티파티(TEA Party)¹⁾의 열기가 유럽으로 전파되고 있는 시기에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컸다.

WTA는 “제한된 정부, 납세자의 권리 향상, 조세경쟁”을 3대 실천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납세자 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협조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WTA의 최근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flat) 소득세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득세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소득세는 소비세로 대체하자”는 혁신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인터넷을 통한 납세자 운동”을 주요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셋째, 정보공유를 통해 납세자연합회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회원 수 증대 방안, 자금조달 방안, 미디어의 주목을 끄는 방법, 정치적 영향력 증대 방안, 선거에서의 납세자권리 증대 방안 등에 관한 정보와 전략을 회원국들 간에 긴밀히 공유하고자 한다. WTA는 비영리(non-profit)단체로 정치·행정적으로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려 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로부터 한 푼도 지원받지 않는다.

1) 1773년 식민지 시절 보스턴 주민들이 영국 본국으로부터 차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항구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선박 두 척을 습격해 차 상자를 모두 바다로 던진 사건이 '보스턴 티 파티'다. 일종의 조세 저항운동이었다. 20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티파티란 이름의 운동이 재연되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 결국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정치사회적으로 변용된 것이다. 티(TEA)에는 '이미 충분히 세금을 냈다(Taxed Enough Already)'는 뜻도 담겨 있다. 운동원들은 자신들의 뜻과 다른 정치인들에게 '티백'을 보내기도 한다.

올해 주요 참석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번영재단(Americans for Prosperity), 미국조세개혁재단(Americans for Tax Reform Foundation),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 FreedomWorks, 기업경쟁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맨해튼연구소(Manhattan Institute), 경제교육재단(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자유주의연맹(Libertarian Alliance), 정부낭비반대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 납세자연맹(National Taxpayers Union), 레이건대통령재단(Reagan Presidential Foundation) 등이 참가하였고, 영국의 경우 납세자동맹(Taxpayers' Alliance), 아담스미스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Big Brother Watch, Civitas, Policy Exchange, 오스트리아의 하이에크연구소(Hayek Institute), 독일납세자연맹(German Taxpayers' Association), 스위스의 자유주의연구소(Liberales Institut), 유럽납세자연협회(Taxpayers' Association of Europe) 등이 참가하였다. 참가국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독일,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을 비롯하여 체코,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그루지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기니, 홍콩, 태국, 케냐 등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개국에서 대표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있어서 자유시장의 역할,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지구온난화 정책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에 미치는 효과, 인터넷 규제와 개인의 자유 침해,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의료개혁 방안, 자유에 대한 위협과 자유수호의 길, 은행에 대한 과세 방안, 조세경쟁, 세계 각국에서의 조세저항 운동, 자유주의 운동의 새로운 방향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알차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WTA 회의에서는 다음 주제들이 참가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첫째, 미국과 유럽은 금융위기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은행과 금융서비스 산업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지만 자본이동이 은행세(tax on banks)의 도입을 저지하였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유럽 정부는 조세카르텔(tax cartels)을 형성하여 은행에 대한 글로벌 과세방안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향후 각국 간에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증대될 전망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무역은 전 세계에 커다란 물질적 번영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은 아직도 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거나 새로운 보호무역조치들을 도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조세체계가 자유무역을 위협하는 새로운 보호무역정책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조세체계가 자유무역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세경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로 국가채무가 누적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인상은 납세자들로부터의 커다란 저항(tax rebellion)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티파티(TEA Party)의 인기는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세계납세자연합회는 은행세 도입을 반대하고, 조세경쟁을 적극 지지하고, 조세인상 시 조세저항을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한 유럽의 신흥 시장경제 국가들에서 전개되고 있는 “자유시장 홍보를 위한 로드쇼(Free Market Roadshow)”는 예상외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보였다. 프라하에서 시작하여 비엔나, 베오그라드, 부다페스트, 취리히, 파리, 런던, 브뤼셀, 베를린 등에 이르는 대장정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옹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활동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유시장을 홍보하는 이와 같은 거리쇼(교육 및 홍보활동)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좀 더 일찍 전개되었다면 반시장적인 국민 정서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의 납세자 운동의 ‘성공’은 WTA의 주요 자랑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은 135만 명에 이르는 인터넷 회원 수를 거느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시민단체(NGO)로 ‘자랑스럽게’ 소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설립 6년 만에 62개의 지방납세연합회와 16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어느 중국의 통계처럼 다소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납세자 운동은 그 신뢰성을 의심하리만큼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납세자 운동이 ‘순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국과 영국의 납세자 운동은 언론의 관심 속에서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시급히 배워야 할 점이다. 최근 미국에서의 티파티의 부흥은 그 단적인 예이다. 영국납세자동맹(Taxpayers Alliance)의 성과 또한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영국납세자동맹은 조세 인하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5만5천 명의 후원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15명의 우수한 전임 직원을 채용하여 연구·홍보·거리활동 등을 통해 영국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압력단체의 하나로 성장하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시민단체가 성공하려면 다음 사항들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신념, 비전, 봉사정신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설 및 설득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일반대중들을 상대로 하든 정치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든 이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연설능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조건이다. 연설은 역사적 사례를 인용하고, 유머를 자유로이 구사하며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느끼게 해야 한다. 연설은 한마디로 재미(fun)에 진정성(true)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다.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은 자금조달에 남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연구-토론-홍보”를 통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길거리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건이다. 넷째, 언론과 일반대중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드(key word) 개발”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일반시민들과 소통을 위해 키워드 개발에 매우 열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어린이들이 자주 가는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의 활동을 홍보하고 있다. 어린이가 가는 곳에 부모가 함께 간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어린이를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선진국 시민단체들의 경험담을 통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와 국가의 번영을 이룩하고자 하는 데 그 활동의 목표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이룬 납세자연협회(또는 연맹)의 ‘성공’을 우리나라라고 못 이룰 바 없을 것이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들은 정부로부터 빼앗긴 자유를 되찾고,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납세자의 권리 신장을 통해 ‘자유, 시장경제, 국가번영’이라는 시대정신(zeitgeist)을 구현하고자 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선진국의 풀뿌리(grass roots)는 살아 움직이며 발전지향적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선진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식으로 무장된 용기와 신념을 가진 전사들(fighters)”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인류 역사는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스탠리(D. Stanley) WTA 회장은 정부와 의회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헌법적으로 조세와 지출을 제한하는 길만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길”임을 역설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해 역사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이 생각나 우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본 행사를 기념하는 만찬식은 영국의 유서 깊은 길드홀(Guildhall)에서 거행되었다. 만찬식장에는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전 영국 수상과 래퍼곡선으로 유명한 래퍼(Arthur Laffer) 교수도 참가하였다. 만찬장 식탁에는 ‘래퍼곡선이 그려진 역사적인 냅킨’이 등장하여 주목을 끌었다. 필자는 대처 여사와 래퍼 교수와 잠시 환담하는 가문의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